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소 우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코퍼스 기반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국내 대학 영자 신문의  
연관성 연구

- however/but, will/be going to 중심으로 -

201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강 아 름

코퍼스 기반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국내 대학 영자 신문의  
연관성 연구

- however/but, will/be going to 중심으로 -

정 소 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강 아 름

# 인 준 서

강아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정 소 우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고 정 민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정 다 운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에서는 EFL 환경인 한국에서 영어 학습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 학습 자료인 영어 교과서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교과서 영어의 특징을 분석하여 그러한 특징이 국내 대학 영자 신문사설의 영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특징 분석을 위해 선정된 항목은 사용빈도가 높으며,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역접의 의미를 나타내는 *however*와 *but*의 비교, 미래를 나타내는 *will*과 *be going to*를 택하였다. 접속(부)사 *however*와 *but*은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서술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비교대상으로 선정되었고 *will*과 *be going to*는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비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실제로 기초 영문법에서도 두 표현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어 학습자들에게 두 표현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사용양상 비교를 통해 영어 교과서와 대학 영자 신문사설의 연관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영어 교과서와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서 나타난 *however*와 *but*의 사용양상과 *will*과 *be going to*의 사용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먼저 *however*와 *but*을 비교한 결과, 영어 교과서와 대학 영자 신문 모두에서 *however*보다 *but*의 사용비율이 더 높았다. 문두, 문중 출현 비율에 있어서도 두 코퍼스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however*는 문두에 나타나는 비율이 높았으며 *but*은 문중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will*과 *be going to* 비교결과, *be going to*의 사용비율보다 *will*의 사용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영어 교과서와 대학 영자 신문에서 나타났다. 또한 영어 교과서 코퍼스에서 *will*이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be going to*보다 높은 사용비율을 보였으며 사전 결정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be going to를, 화자가 말하는 시점에 결정된 미래를 위해서는 will이 사용되는 비율이 높았다. 영어 교과서 코퍼스에서 나타난 will과 be going to의 이 같은 특징은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영어 교과서 출판사별 however와 but의 사용 비율, will과 be going to의 사용 비율을 살펴 본 결과, 세 개의 출판사에서 비슷한 사용양상을 보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 I.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 1.2. 연구 문제.....2

### II. 이론적 배경.....3

- 1. 기능어.....3
  - 1.1. 기능어의 정의.....3
  - 1.2. 기능어의 종류와 특징.....5
  - 1.3. 기능어 관련 선행 연구.....11
- 2. 코퍼스.....12
  - 2.1. 코퍼스 언어학.....12
  - 2.2. 코퍼스의 종류와 특징.....13
  - 2.3. 코퍼스 관련 선행 연구.....16

### III. 연구방법 및 설계.....19

- 1. 연구 대상.....19
- 2. 연구 도구.....21
- 3. 연구 방법.....23

### IV. 연구결과 및 논의.....24

- 1. 영어 교과서와 대학 영자 신문사설의 어휘 목록.....24
- 2. 접속(부)사 however, but.....25
  - 2.1. 영어 교과서.....26

2.2 출판사별 영어 교과서의 비교.....	31
2.3 대학 영자 신문.....	32
2.4 however와 but 사용 양상의 요약.....	38
3. 조동사 will과 be going to.....	38
3.1 영어 교과서.....	40
3.2 출판사별 영어 교과서의 비교.....	47
3.3 대학 영자 신문.....	48
3.4 will과 be goingn to 사용 양상의 요약.....	55
 V. 결론 및 제언.....	 56

참고문헌

ABSTRACT

## 표 목 차

〈표 1〉 기능어 분류표.....	5
〈표 2〉 인칭 대명사의 종류.....	10
〈표 3〉 지시대명사의 분류.....	10
〈표 4〉 대표적 코퍼스와 그 특징.....	14
〈표 5〉 영어 교과서 목록.....	19
〈표 6〉 대학 영자 신문 자료 구축 기간.....	20
〈표 7〉 분석 대상 기능어 목록 .....	23
〈표 8〉 영어 교과서 어휘목록.....	24
〈표 9〉 대학 영자 신문 어휘목록.....	24
〈표 10〉 영어 교과서에서에 사용된 however와 but.....	26
〈표 11〉 영어 교과서에서의 however와 but의 출현 빈도.....	27
〈표 12〉 영어 교과서에서 however가 문두 혹은 문중에 출현하는 빈도.....	28
〈표 13〉 영어 교과서에서 but이 문두 혹은 문중에 출현하는 빈도.....	30
〈표 14〉 각 출판사별로 나타나는 however와 but의 사용 비율.....	31
〈표 15〉 영어 교과서에서에 사용된 however와 but.....	33
〈표 16〉 대학 영자 신문에서 however와 but의 출현 빈도(백분율).....	33
〈표 17〉 대학 영자 신문에서 however가 문두 혹은 문중에 출현하는 빈도.....	34
〈표 18〉 however의 위치적 특징.....	36
〈표 19〉 대학 영자 신문에서 but이 문두 혹은 문중에 출현하는 빈도.....	37
〈표 20〉 will과 be going to의 특징.....	39
〈표 21〉 영어 교과서 코퍼스에 사용된 will과 be going to.....	40
〈표 22〉 영어 교과서 코퍼스에 사용된 will과 be going to의 비율 .....	40
〈표 23〉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사용된 will과 be going to.....	41

〈표 24〉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나타나는 will과 be going to(백분율).....	42
〈표 25〉 미래의 확실성에 따른 will의 사용 비율.....	44
〈표 26〉 미래의 확실성에 따른 be going to의 사용 비율.....	45
〈표 27〉 각 출판사별로 나타나는 will과 be going to의 사용 비율.....	47
〈표 28〉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 사용된 will과 be going to.....	48
〈표 29〉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 사용된 will과 be going to의 비율.....	49
〈표 30〉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사용된 will과 be going to.....	50
〈표 31〉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나타나는 will과 be going to(백분율).....	50
〈표 32〉 미래의 확실성에 따른 will의 사용 비율.....	52
〈표 33〉 미래의 확실성에 따른 be going to의 사용 비율.....	54

## 그 립 목 차

〈그림 1〉 AntConc 3.2.1w 프로그램 실행화면 예.....	21
〈그림 2〉 ‘concordance’기능 실행화면 예.....	22
〈그림 3〉 ‘File View’ 기능 실행 화면 예.....	22

# I.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어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영어를 구사하면 세계인들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해 졌다. 이와 함께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영어의 세계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는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어도 영어만 할 수 있다면 접근이 가능하다. UN과 같은 국제기구 취업을 위해서는 유창한 영어실력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 주요 관광지나 국가 시설에 영어 안내문이 기본적으로 비치되어있는 것을 보더라도 영어의 세계화 현상은 부정할 수 없다.

싱가포르, 홍콩과 같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환경을 ESL(English as Second Language)환경이라 하고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환경을 EFL(English as Foreign Language)환경이라고 한다. EFL 상황인 한국에서는 영어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 국민이 영어에 열광하고 있다. 유치원생들은 비싼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학생들은 입시를 위해 영어 학원에 다니거나 개인 과외를 받고 성인들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영어를 배운다. 이와 더불어 영어 학습을 위한 다양한 교재들도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영어 학습지가 개발되고 판매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로 교과서를 통해 영어와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국내와 같은 EFL환경에서는 영어 학습 시 영어 교과서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미 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시행되었다. 먼저, 조미숙(2002), 이연정(2005)등은 중학교 영어 교과서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연계성을 연구한 종적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권인숙(2002,2004), 정

은혁·민주경(2005)등은 교과서의 어휘 분석, 문화요소 분석 등 횡적연구를 실시하였다(고광윤, 2008).

최근에는 교과서 분석을 위해 코퍼스 언어학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코퍼스를 활용한 교과서 분석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다(강범모 1995, 이승렬 1999 등). 고광윤과 이성운(2008)은 국내 영자신문 사설의 영어와 미국영어 코퍼스인 Frown코퍼스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법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국내 영자신문 사설의 영어에서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이 반영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국내 대학 영자신문의 영어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이 과연 EFL환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학습자료 교과서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차후의 교과서 개발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얻어 앞으로의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1.2 연구 문제

국내 대학 영자 신문의 영어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이 교과서에도 나타나는지 알아보는데 있어 본 논문에서 살펴볼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접속사 however와 but의 사용양상이 국내 대학 영자 신문에서 나타나는 사용양상과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조동사 will과 be going to의 사용 양상이 국내 대학 영자 신문에서 나타나는 사용양상과 차이를 보이는가?

## Ⅱ. 이론적 배경

### 2.1. 기능어

#### 2.1.1. 기능어의 정의

어휘는 언어 학습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된다. 읽기와 쓰기뿐만 아니라 최근 영어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듣기 말하기에 있어서도 어휘는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어휘는 의미나 사용되는 기능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Randolph Quirk(1985)는 다음과 같이 어휘를 나누고 각각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내용어(content word)란 명사(noun), 동사(verb), 형용사(adjective), 부사(adverb) 등과 같이 독자적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어휘를 말하며 기능어(function word)란 관사(article), 대명사(pronoun), 전치사(preposition), 접속사(conjunction), 조동사(auxiliary verb)와 같이 실질적으로 그 단어의 의미를 나타내기보다 단어와 단어 간의 문법적 기능만을 나타내주며 내용어에 붙어 그들의 쓰임을 도와주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기능어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어휘가 추가되는 내용어와 다르게 어휘가 추가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때문에 기능어는 폐쇄체계(closed-system)에 속해있고 내용어는 개방체계(open-system)에 속해있다고 보며 이러한 이유로 기능어의 어휘 수는 계속해서 추가되는 내용어의 어휘 수에 비해 현저히 적다(Randolph Quirk, 1998).

이 밖에도 많은 학자들(신일철2002, 조석중1997)이 기능어와 내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기본 맥락은 Randolph Quirk(1985)의 정의와 같다.

하지만 기능어가 내용어에 붙어서 내용어를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고 해서

또는 내용어에 비해 단어의 수가 현저히 적다할지라도 기능어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기능어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먼저 어휘에 있어 기능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Prapor(1972)는 기능어에 속해있는 The, Of, And, To, An, In, That, It, Is 그리고 I가 영어 구어와 문어에 사용된 모든 단어 중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코퍼스를 이용한 텍스트 분석에서 어휘 목록의 상위 목록을 차지하는 단어들은 내용어가 아닌 바로 기능어들이다. 기능어가 중요한 다른 이유는 아무리 많은 내용어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기능어를 문법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문장이 아니라 단지 단어의 나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 (1) The *winfy prunkilmonger* from the *glidgement mominkled* and *brangified* all his *levensers vederously*.
- (2) *Glop* angry investor *larm blonk* government harassed *gerfrits* infuriated *subor pumrog* listeners thoroughly.

문장 (1)에서는 내용어들이 무의미철자(Nonsense syllable)들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미사를 통해 어휘의 품사를 유추할 수 있고 기능어로 인해 문장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문장 (2)에서는 기능어들이 무의미철자(Nonsense syllable)들로 바뀌었다. 기능어가 상실된 내용어로만 구성된 문장 (2)는 단지 단어의 나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Thomas P. Klammer, Muriel R. Schulz 1996). 마지막으로 기능어의 수가 내용어에 비해 적다할지라도 기능어의 쓰임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다음 항에서는 기능어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다양한 쓰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1.2 기능어의 종류와 특징

기능어는 일반화된 종류가 없다. 따라서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는데 학자마다 규정하고 있는 기능어의 종류를 <표 1>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다.

<표1>기능어 분류표 (김영숙, 2000)

학자	기능어 분류					
Cross, D 나기연	관사	접속사	조동사	전치사		
조석중	관사	접속사	•	전치사		
Prator,C.H	관사	접속사	조동사	전치사	인칭대명사, 관계대명사, 소유형용사, one	
Selkirk 김경석	한정사	접속사	조동사 (법조동사)	전치사	대명사	
Randolph. Q & Sidney.G	관사	접속사	•	전치사	대명사	지시사 감탄사
계						

#### 2.1.2.1 관사(Article)

한정사에 속하는 관사는 ESL(English as Second Language)/EFL(English as Foreign Language)학습자가 영어학습 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심지어는 영어 모국어자 만큼 영어를 구사하는 학습자도 관사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다. 관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여 명사를 수식하거나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관사는 크게 정관사(definite article) the

와 부정관사(indefinite article)a/an 그리고 관사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zero article’ 세 가지로 나뉜다. 관사에 대해서는 Ron Cowan(2008)에서 알아보았다.

가. 정관사(definite article): the

1) 단수, 복수, 가산, 불가산 명사 앞에 놓인다.

the lamp	the furniture
the lamps	the juice
the ocean	the water

2) 화자, 청자가 말하고 있는 특정 명사에 대해 알고 있을 때 사용한다.

Bring me the screwdriver (청자는 화자가 어떤 특정 screwdriver를 말하는지 알고 있다.)

3) 사람의 이름 앞에는 정관사를 쓰지 않는다.

I would like to meet Donald.

4) 단, 아래의 경우에는 사람 이름 앞에 위치하기도 한다.

가) 다른 사람과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

Oh, the Harry Kilgore you are referring to clearly isn't the Harry Kilgore I know.

나) 유명인사와 연예인을 언급할 때

I actually met THE Brad Pitt, you know, the movie star.

다) 가족, 가문을 언급할 때 이름의 복수형과 함께

You remember that we are having dinner with the Smith on Friday, right?

나. 부정관사(indefinite article): a/an

1) 단수, 가산명사 앞에 놓인다.

A bag            a lamp            a book

- 2) 화자, 청자가 말하고 있는 명사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 특정 명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사의 생김새나 용도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때

Bring me a screwdriver. (청자는 screwdriver에 대해 알고 있으나 특정 screwdriver를 떠올리지 않는다.)

- 3) 일반적으로 불가산 명사와는 쓰이지 않지만 부분사(partitive)와 함께 사용된다.

A slice of pizza

A cup of coffee

A bowl of oatmeal

- 4) 매일 사용하는 '다'의 예문들과 같은 경우 부분사(partitive)를 생략하기도 한다.

Would you like to go somewhere and have a coffee?

다. zero article

- 1) beauty, intelligence, education과 같이 개념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명사 앞

- 2) 이름과 전문직위를 나타내는 명사 앞

I would like to meet Dr.Jane Phillips and her husband, George.

- 3) 관습이나 습관, 기구, 시설을 나타내는 명사 앞

He enjoys breakfast

She talks a lot in class

### 2.1.2.2 접속사(Conjunction)

접속사(Conjunction)는 단어(word), 구(phrase), 절(clause) 혹은 문장(sentence)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접속사는 동격에 한해 접속을 해주는 대등접속사(coordinate conjunction)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이어지는 종속접속사(subordinate conjunction)이 있다. 접속사에 대해서는 김영숙(2000)을 참고하였다.

#### 가. 대등접속사(coordinate conjunction)

대등접속사(coordinate conjunction)는 동격에 한해서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명사는 명사끼리, 동사는 동사끼리, 단어는 단어끼리, 구는 구끼리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And, but, or 등이 대등접속사에 포함된다.

Apple and pear

Go and come

Poor but honest

I rest in my house, and he reads the book in the library.

#### 나. 종속접속사(subordinate conjunction)

종속접속사(subordinate conjunction) 다음에는 반드시 절이오며 명사절, 형용사절, 혹은 부사절이 온다. 또한 종속접속사(subordinate conjunction)에는 시간을 이끄는 접속사(when, as, as soon as, once) 장소를 이끄는 접속사(where, wherever, whence), 원인, 이유를 이끄는 접속사(because, since, now, that), 양보절을 이끄는 접속사(though, however), 비교 부사적을 이끄는 접속사(as~so, not so ~ as), 조건을 이끄는 접속사(if, unless, supposing that, but that), 그리고 결과를 이끄는 접속사(so ~ that)이 있다.

### 2.1.2.3 조동사(Auxiliary verb)

조동사(Auxiliary verb)는 동사의 앞에 위치하여 능력, 가능성, 허락 등의 의미를 표현한다. 조동사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으며 Ron Cowan(2008)에서 알아보았다. 능력, 허락,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can/could, 가능성과 허락을 나타내주는 may,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might, 조언을 나타내는 should, 의무, 금지, 최소의 조건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must, 충고를 나타내는 dare, 필요를 나타내는 need, 충고를 나타내는 ought to, 예측의 의미를 내포하는 미래를 나타내는 will과 shall, 과거의 예측을 나타내는 would, 계획된 미래와 임박한 행동을 나타내는 be going to가 있다.

### 2.1.2.4 전치사(Preposition)

전치사(Preposition)는 NP(명사, 동명사, 대명사)앞에 위치하여 시간, 장소, 목적 등을 나타내 준다. 장소를 나타내 주는 전치사(in, on, under, beside), 행동의 동기를 나타내 주는 전치사(from, off), 목적을 나타내 주는 전치사(to, into, onto), 행동을 취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나타내주는 전치사(with, by) 그리고 곁들여진 것, 부산물을 나타낼 때 필요한 전치사(with)가 있다.

### 2.1.2.5 대명사(Pronoun)

대명사(Pronoun)는 명사를 대신하여 쓰는 것으로 문장 안에서 명사의 역할과 동일하다. 따라서 명사와 마찬가지로 대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보어로 사용된다. 문장 안에서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명사는 명사만을 대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이나 뒤에 나

온 절이나 구를 대신해서 쓰이기도 한다(김영숙, 2000). 대명사에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의문대명사, 그리고 it이 있다. 이들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보았다.

가.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는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표로 나타내면 <표2> 와 같다.

<표 2> 인칭 대명사의 종류

인칭		인칭대명사			소유 대명사	재귀 대명사	
		주격	소유격	목적격			
1인칭	단수	I	My	Me	Minisse	Myself	
	복수	We	Our	Us	Ourshers	Ourselves	
2인칭	단수	You	Your	You	Yours	Yourself	
	복수	You	your	You	Yours	yourselves	
3인칭	단 수	남성	He	His	Him	His	Himself
		여성	She	Her	Her	Hers	Herself
		중성	It	Its	It		Irsel
	복수	they	their	them	theirs	themselves	

나.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에는 this, that, these, those가 있으며 이들은 사물이나 상황을 지시해서 나타낼 때 쓰인다. 단수, 복수에 따라 가까운 지시냐 아니면 먼 지시냐에 따라 나뉘는데 표로 나타내면 <표 3> 과 같다.

<표 3> 지시대명사의 분류

	단수	복수
가까운 지시	this	these
먼 지시	that	those

다. it

성별이 나타나지 않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할 때, 가주어나 가목

적어로 사용할 때, 또는 날씨나 시간, 거리, 무게 등을 나타낼 때 대명사 it 을 사용한다.

라. 의문대명사

Who, when, where, what, why, how, which 등과 같은 의문사가 명사의 역할을 할 때 의문대명사라 한다. 의문대명사에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의문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하는 의문부사가 있다.

### 2.1.3 기능어 관련 선행 연구

지금까지 기능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그 중에서도 논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미래를 나타내는 will과 be going to의 용법연구, 관사의 용법연구 그리고 교과서에 나타나는 기능어의 특징을 분석한 논문을 중심으로 참고하였다.

먼저, 홍경선(2008)은 미래를 나타내는 will과 be going to의 용법을 구조적, 의미적, 사용적 삼차원적으로 분석하여 will과 be going to의 용법 비교 시 현재 중요시되는 의미적 접근뿐만 아니라 담화적 특성을 함께 학습자에게 지도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결론 도출을 위해 홍경선은 Celce-Murcia와 Larsen-Freeman(1999)의 연구를 참고하여 will과 be going to의 구조, 의미, 사용의 세 관점에서 점검하고 Biber외(2000)의 코퍼스 자료를 근거로 L1화자들의 will과 be going to를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 보완자료와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will이 be going to보다 더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will은 일반적 미래를 나타내며 의도성이 적을 때 사용되고 이에 반해 be going to는 현재와 관련이 높은 미래를 나타내며 사전 결정을 내릴 때 사용되기 때문 의도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will은 문어적 텍스트에서 좀 더 격식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be going to는 구

어적 상황에서 비격식적인 표현이 가능할 때 사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will과 be going to의 선택이 단지 의미뿐만 아니라 격식성과 장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최종결론을 내리고 있다.

고광윤(2008)은 기능어 중심으로 교과서 영어의 영어다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한국 고등학교 영어 독해 교과서에 쓰인 기능어와 미국영어 코퍼스 Frown에 쓰인 기능어의 쓰임에 대해 연구하여 교과서에 쓰인 영어가 원어민이 사용하는 영어를 얼마나 많이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인칭대명사 it의 비지시적 용법과 he/his/him vs. she/her, 관계대명사 which vs. that, whose, vs. of which를 분석하고 서법조동사 must, should, 전치사 since, before, 접속(부)사 while, however, therefore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능어의 쓰임에 있어서 한국 고등학교 영어 독해 교과서와 원어민의 영어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접속사 however와 therefore의 쓰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미국영어에서 접속부사 however와 therefore가 문장의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한국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문두에만 위치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서는 한국어에서 접속부사의 문두에만 위치하고 문장의 중간에는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의 특징이 영어의 사용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연구가 시행되어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 2.2 코퍼스

### 2.2.1 코퍼스 언어학

코퍼스는 대량의 언어자료, 대규모의 텍스트 등으로 정의된다. 코퍼스 언

어학은 직관을 중시했던 기존의 언어학과 달리 실제 사용되는 언어의 예를 기반으로 연구하는 방법이다. 컴퓨터와 관련이 깊은 코퍼스 언어학은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지고 발전함에 따라 그에 힘입어 함께 발전하고 있다. 코퍼스 언어학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1950년대에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이 실증적 자료를 중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60년 이후로 런던 대학에서 Randolph Quick이 영어의 실제 쓰임을 조사하기 시작한 ‘The Survey of English Usage’라는 연구계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코퍼스 언어학 연구가 시작되었다. 현재는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The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COCA)가 4억 1천 개의 단어의 구축으로 까지 확대되었다. 코퍼스 언어학이 활용되는 분야는 사전 편찬, 비교 언어학, 역사에 따른 언어의 변화, 언어 연구 등 다양하다. 1994년 이전에는 코퍼스를 활용한 교육연구를 찾을 수 없었으나 TALC94 워크숍(Teaching and Language Corpora at Lancaster University in the Spring of 1994)에서 소개된 이후 코퍼스가 교육 분야에서 중요성을 띠기 시작했다(권인숙, 2001).

코퍼스는 실제 사용되는 언어의 자료로서 영어 교육에 있어서 과거 원어 민의 직관에 의해 언어학습이 이루어졌던 것에서 벗어나 코퍼스를 활용한 진정성 있는 자료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영어 학습이 이루어진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손유경, 2010).

### 2.2.2 코퍼스의 종류와 특징

코퍼스의 종류는 크게 일반 코퍼스(general corpus)와 특수 코퍼스(special corpus)로 나뉜다. 일반 코퍼스(general corpus)는 다양한 장르, 성별, 시대를 포함하며 구어와 문어로 구성되어있다. 이에 반해 특수 코퍼스(special corpus)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구축된 코퍼스로 학습자들의 언어를 모아놓

은 학습자 코퍼스(learner corpus), 시대에 따른 언어의 추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역사 코퍼스(historical corpus), 그리고 수업 중 교실에서 사용된 교사와 학생의 언어를 모아둔 교육용 코퍼스(pedagogic corpus) 등이 있다. 좀 더 자세히 코퍼스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대표적 코퍼스와 그 특징 (유영미, 2010)

코퍼스명	특징
<b>Brown Corpus</b>	(The Brown University Standard Corpus of Present-Day American English), 100만 어절, 1960년대, 미국문어. 리포트, 사설, 리뷰, 종교 등 총 15개 장르에 걸친 500개 샘플(출판된 저작물), Brown University의 Henry Kucera와 W. Nelson Francis가 주도하여 구축
<b>LOB Corpus</b>	(Lancaster-Oslo-Bergen Corpus), 100만 어절, 1980년대, 영국 문어. 최대한 Brown Corpus의 포맷(장르와 표본 크기)에 맞춤, University of Lancaster, the University of Oslo, the Norwegian Computing Centre for the Humanities, Bergen이 협력하여 구축
<b>LSWE Corpus</b>	(Longman Spoken and Written English Corpus), 4000만 단어, 현대, 대화, 소설, 뉴스, 학술산문으로 구별되는 4개의 사용역(register)에서 선정한 영어자료 포함, 분석 결과가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라는 책으로 편찬되어 있음
London-Lund Corpus	50만 단어, 1960년대, 영국 구어, 영어 사용례 말뭉치(Survey of English Usage Corpus)의 구어부분을 주로 주석
MICASE	(The Michigan Corpus of Academic Spoken English), 180만 단어, 현대, 강의, 교실 토론, 실험실, 세미나, 상담 등의 다양한 발화상황에서 쓰인 어휘를 녹음 후 문자화
ICE	(International Corpus of English), 각각 100만개 단어로 구성됨, 전 세계 각지의 20개 국가 및 지역의 문어와 구어 자료, 1989년 이후, 지역별 영어의 비교 연구가 목적. ICE는 국가별 언어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최초의 연구
BNC	(The British National Corpus), 1억 단어, 20세기 후반, 영국 영어 샘플. 문어 데이터: 한 사람의 저자가 쓴 텍스트와 여러 저자가 쓴 텍스트(예를 들어 잡지와 신문)에서 각각 45,000단어를 추출함으로써 코퍼스에 특정 개인의 특색이 드러나는 일을 방지 구어 데이터: 10%가 포함되어 있으며 라디오 서, 전화 통화, 비즈니스 등 다양한 상황의 담화를 녹음 후 필사, 홈페이지 ( <a href="http://www.natcorpox.ac.uk/">http://www.natcorpox.ac.uk/</a> )

ANC	(The American National Corpus), 2200만 단어, 1990년 이후 미국 영어 샘플. BNC와 같은 규모 및 성격의 코퍼스 구성이 목표, 홈페이지 ( <a href="http://www.americannationalcorpus.org/">http://www.americannationalcorpus.org/</a> )
The Bank of English	33만 단어, 1960년대 이후, 영국 영어, 30% 정도의 구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콜린스 코빌드가 주로 활용하고 있음
COCA	(The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4억 1천 개 단어. 현존하는 최대의 미국 영어 코퍼스, 1990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 Brigham Young University 의 코퍼스 언어학 교수인 Mark Davies의 주도하에 구축. 일반에 공개되어 있음. 웹사이트 ( <a href="http://www.americancorpus.org/">http://www.americancorpus.org/</a> )

코퍼스의 수억 개까지 이르는 단어들의 방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콘코던스(Concordance)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AntConc3.2.1w, WordSmith Tools, MicroConcord 등이 있다. 콘코던스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코퍼스 내의 특정 단어의 사용 예와 다른 단어와의 결합등을 문맥 내에서 보여준다.

### 2.2.3 코퍼스 관련 선행 연구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코퍼스가 발달하며 코퍼스 기반 연구가 많이 진행

되었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광윤(2005)은 코퍼스에 대한 좀 더 진지하고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함과 코퍼스를 활용한 영어학 연구를 통해 한국적 영어학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논란이 많은 tough-구문을 코퍼스를 활용한 맛보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예문 검색을 통해 귀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코퍼스 쓰임의 장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제한된 유형만 분석할 수 있다는 점과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의 코퍼스 활용의 한계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코퍼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한 연구에는 코퍼스를 통해 한국 영어 교과서의 어휘를 분석하거나 한국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사설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고광윤과 이성운(2008)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의 사설과 미국영어 코퍼스 Frown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의 영어가 영어 원어민에 의해 검토되고 수정되어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민이 실제 사용하는 영어와 면밀히 비교해보면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 보았다. 기능어 중심으로 핵심키워드를 산출하여 기능어가 쓰인 용법과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논자가 예측했던 대로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던 영자신문의 영어에서 한국어 화자의 언어적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 영자신문의 영어에서 보여지는 한국어 특성이 세계영어가 보편화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한국적 영어의 독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적 영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코퍼스를 통한 영어 교과서의 분석에는 권인숙(2004)의 연구가 있다. 권인숙은 한국의 중학교 1,2,3학년의 6차와 7차 63종 영어 교과서의 본문과 듣기 대본을 분석하였다. 단어, 일반단어와 특수단어, 품사, 특정 어휘, 수동태의

유형과 구형을 6차와 7차, 출판사 그리고 학년별로 분석하였다. 그와 더불어 본문과 듣기의 최다빈도 단어 50개를 일반 목적 코퍼스와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어절과 단어 수 모두 6차보다 7차에서 증가하였고 산출단어를 조사해 본 6차보다 7차에서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출판사간 중복 사용된 단어의 개수와 어절의 개수도 6차와 7차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일반 목적 코퍼스와 최다빈도 단어 50개의 비교에서는 24개의 공통된 단어만 나타났다으며 이는 일반 목적 코퍼스와 교육목적 코퍼스의 과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영어 교과서의 영어와 국내 대학 영자신문의 영어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및 설계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기능어의 사용양상이 국내 대학 영자 신문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EFL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자료인 교과서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개정7차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11종의 본문과 국내 5개 대학의 영자 신문 100개를 AntConc 3.2.1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선정된 국내의 5개 대학은 ‘2011 중앙일보 대학평가순위’에서 20위 내의 대학 중 영자 신문의 자료수집이 용이한 대학이었다.

#### 3.1 연구 대상

개정 7차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국내 대학 영자신문을 자료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영어 교과서의 코퍼스 파일 구축을 위해 총 11종을 택하였고 그 중에서도 문어체의 신문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본문을 텍스트 파일로 만들었다. 구축된 코퍼스의 어휘 타입은 총 7,672로 나타났고 어휘의 토큰은 97,845로 나타났다. 코퍼스 구축에 사용된 교과서의 목록은 <표 5> 와 같다.

<표 5> 영어 교과서 목록

저자	교과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이찬승 외	High School English	(주)능률교육	2008
김성곤 외	High School English	(주)두산동아	2008
이재영 외	High School English	(주)천재교육	2008

이찬승 외	High School English I	(주)능률교육	2009
김성곤 외	High School English I	(주)두산동아	2009
이재영 외	High School English I	(주)천재교육	2009
이찬승 외	High School English II	(주)능률교육	2009
김성곤 외	High School English II	(주)두산동아	2009
이재영 외	High School English II	(주)천재교육	2009
이찬승 외	High School English Reading and writing	(주)능률교육	2009
김규현 외	High School English Reading and writing	(주)두산동아	2009

국내 대학 영자 신문의 코퍼스 구축을 위해서는 5개 대학의 영자 신문 기사를 텍스트 파일로 만들었다. 구축된 코퍼스의 어휘 타입은 총 8,288개로 나타났고 어휘의 토큰은 73,437로 나타났다. 코퍼스 구축을 위해 사용된 국내 대학 영자 신문의 목록과 기간은 <표 6>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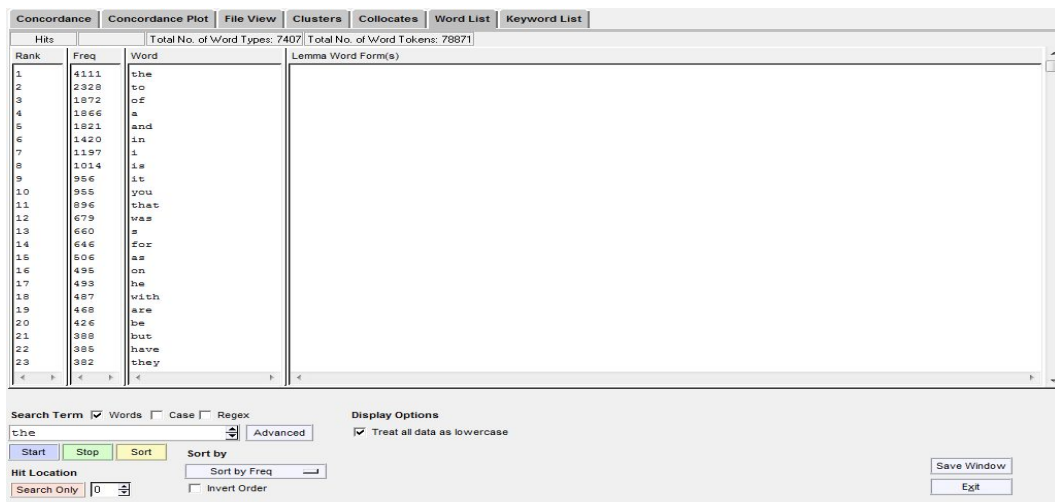
<표 6> 대학 영자 신문 자료 구축 기간

대학교명(영자신문명)	기간
경북대(The KNU Times)	2011년 5월-10월
경희대(The University Life)	
Kaist(The Kaist Herald)	
POSTECH(The Postech Times)	
한국외대(The Argus)	

### 3.2 연구 도구

AntConc 3.2.1w 프로그램은 사용법이 간단하고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AntConc 3.2.1w 프로그램은 일본 와세다 대학 교수 Laurence Anthony가 개발한 프리웨어 콘코던스 프로그램이다. AntConc 3.2.1w 프로그램은 이전의 코퍼스 응용프로그램인 Wordsmith Tools 혹은 Monoconc Pro와 다르게 영어 이외에도 한국어와 같은 특정 언어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Windows, Mac OS X, 리눅스 등과 같은 모든 운영체제에서 사용 가능하다. AntConc 3.2.1w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단어, 구가 어떤 문맥 안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다. 단어, 구의 빈도수, 연어, 용례 파악이 AntConc 3.2.1w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이다. <그림 1>은 AntConc 3.2.1w 프로그램 실행화면의 일부를 캡처한 모습이다.

<그림 1> AntConc 3.2.1w 프로그램 실행화면 예



AntConc 3.2.1w 프로그램의 메뉴에는 ‘Concordance’, ‘Concordance Plot’, ‘File View’, ‘Cluster’, ‘Collocates’, ‘Word List’, ‘Keyword List’가 있다.

각 기능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우선 ‘Concordance’의 기능은 텍스트파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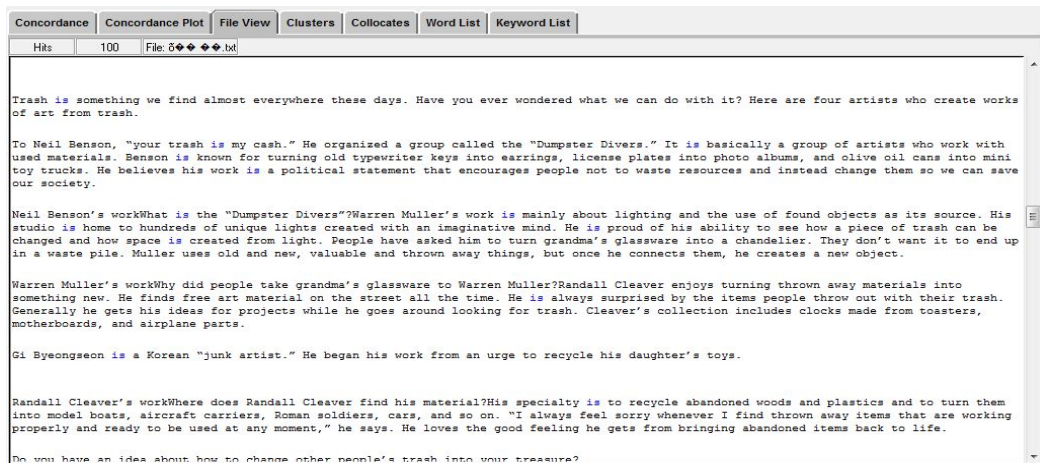
서 선택된 단어를 콘코던스 라인(혹은 KWIC: keyword in context)과 함께 보여준다. 아래 <그림2> 는 ‘Concordance’기능을 실행하였을 때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2> ‘concordance’기능 실행화면 예

Hit	KWIC	File
1	e the trade pact since the <b>government's</b> renegotiation of the de:	Joongang.txt
2	ies to the point where the <b>government</b> does not have to subsidize	Joongang.txt
3	e realistic demands of the <b>government</b> rather than demanding anot	Joongang.txt
4	vice versa. However, the <b>government</b> cannot afford to choose be	Joongang.txt
5	. It is important that the <b>government</b> rein in the protests now,	Joongang.txt
6	ill in an early stage. The <b>government</b> must also demonstrate str:	Joongang.txt
7	foreign debt levels. The <b>government</b> again had to come to the t	Joongang.txt
8	ve some left, pay back the <b>government</b> . They should realize the '	Joongang.txt
9	e U.S. forces and the U.S. <b>government</b> are responding quite sens:	Joongang.txt
10	etween the two allies. Our <b>government</b> is also busy preparing me:	Joongang.txt
11	resident used part of the <b>government</b> budget to buy the land. A	Joongang.txt
12	he land was purchased with <b>government</b> money intended for protect	Joongang.txt
13	t pass the House, the U.S. <b>government's</b> retrogressive action is	Joongang.txt
14	nullification. Both the <b>government</b> and the ruling party must	Joongang.txt
15	parties. Regrettably, the <b>government</b> has only just asked the N:	Joongang.txt
16	last year, Park blamed the <b>government</b> for provoking Pyongyang.	Joongang.txt
17	under question. As an anti- <b>government</b> civilian activist and huma	Joongang.txt
18	airs. He demanded that the <b>government</b> scrap the National Securit	Joongang.txt
19	much to the chagrin of the <b>government</b> . Park's comments during	Joongang.txt

‘Concordance Plot’은 선택된 단어가 등장하는 모든 파일을 검색, 정렬하여 그래프로 나타내 준다. ‘File View’를 통해서도 선택된 단어가 사용된 텍스트의 모든 지문을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3> 은 ‘File View’를 실행했을 때의 캡처 화면이다.

<그림 3> ‘File View’ 기능 실행 화면 예



‘Cluster’를 사용하면 특정 단어가 어떠한 표현들과 함께 사용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 ‘Collocates’기능을 통해서선 선택된 단어와 결합하는 단어의 빈도를 보여준다. 텍스트에 사용된 단어를 빈도수로 정리하여주는 ‘Word List’ 기능도 있다. 마지막으로 ‘Keyword List’를 통해서선 두 개의 코퍼스를 비교해준다.

본 논문에서는 ‘Word List’ 기능을 사용하여 기능어의 빈도수를 알아보고 분석하고자 하는 기능어의 사용된 예를 살펴보기 위해 ‘Concordance’기능, ‘File View’ 기능을 주로 사용하였다.

### 3.3. 연구 방법

AntConc 3.2.1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래의 기능어를 중심으로 사용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선정된 기능어들은 사용빈도수가 높으며 영어 학습 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기능어들로 <표 7> 과 같다.

<표 7> 분석 대상 기능어 목록

기능어	분석 내용
접속(부)사	however, but
조동사	will, be going to

영어 교과서의 코퍼스를 분석한 후에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를 분석하고 두 코퍼스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한다. 더불어 영어 교과서 출판사별 비교분석도 하고자 한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4.1 영어 교과서와 대학 영자 신문의 어휘 목록

기능어 *however/but*, *will/be going to*의 사용양상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영어 교과서 코퍼스와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서의 어휘목록을 살펴보았다. 어휘목록은 아래 <표 8> 과 같다.

<표 8> 영어 교과서 어휘목록

영어 교과서 어휘목록		
순위	빈도 (%)	단어
24	459(0.43)	<i>but</i>
48	279(0.37)	<i>will</i>
111	114(0.12)	<i>however</i>
171	72	<i>going</i>

접속사‘*but*’, 조동사‘*will*’, 접속사‘*however*’의 순으로 나타났다. ‘*be going to*’의 사용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휘 목록에 나타난 ‘*going*’을 ‘*concordance*’기능을 활용하였다.

아래 <표 9> 는 대학 영자 신문의 어휘목록이다.

<표 9> 대학 영자 신문 어휘목록

대학 영자 신문 어휘목록		
순위	빈도 (%)	단어

41	210(0.29)	<i>but</i>
46	185(0.25)	<i>will</i>
47	184(0.25)	<i>however</i>
392	24	<i>going</i>

영어 교과서 어휘목록의 순위와 동일하게 대학 영자 신문 어휘목록에서도 접속사‘but’, 조동사‘will’, 접속사‘however’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영자 신문에 나타나는 ‘be going to’의 사용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어휘 목록에 나타난 ‘going’을 ‘concordance’기능을 활용하였다.

#### 4.2 접속(부)사 however, but

구와 구 사이에서 혹은 절과 절 사이에서 역접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접속(부)사가 however와 but이다. however와 but은 앞의 내용에 대한 반대의 의견이나 내용을 제시할 때 사용된다는 점에서 비슷한 의미(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를 나타내기 때문에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 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어휘들로 비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문장에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의미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의를 갖는다. 고광윤과 이성운(2008)은 Frown 코퍼스와 한국 영자신문사설 코퍼스를 비교를 통하여 접속사 however가 외국인 코퍼스에서는 문중에 많이 사용되지만 한국 영자신문사설에서는 주로 문두에 쓰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역접의 접속(부)사 however는 but보다 강한 역접의 의미를 지니고 문중에 위치할 때보다 문두에 위치할 때 좀 더 강한 역접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제부터 역접의 접속(부)사 however와 but의 위치적 특징을 영어 교과서와 대학 영자 신문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또한 영어 교과서 출판사에 따라 다양한 사용특징을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4.2.1 영어 교과서

영어 교과서 코퍼스에서 사용된 however와 but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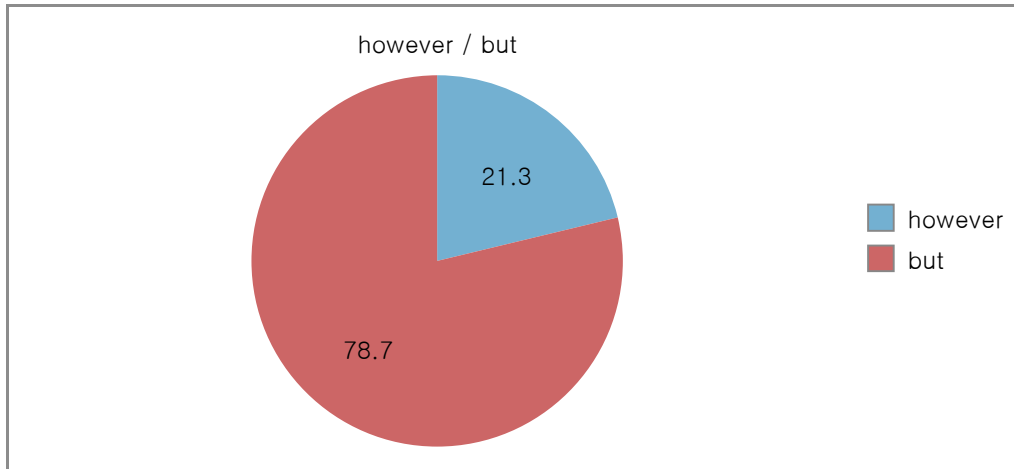
〈표 10〉 영어 교과서 코퍼스에 사용된 however와 but

전체 어휘 수 : 97,845	
사용 횟수(전체 어휘에서의 백분율)	
however	114(0.12%)
but	420(0.43%)

영어 교과서 코퍼스 어휘목록에서 나타난 but의 총 출현 횟수는 459번이지만 전치사로서의 but을 제외한 역접의 의미로 쓰인 경우는 420번으로 전체 코퍼스의 0.43%이다. however는 총 114번 사용되었으며 이는 전체 코퍼스의 0.12%이다. 이를 백분율로 나타냈을 때 도표로 나타내면 〈표 11〉과 같다.

〈표 11〉 영어 교과서에서의 however와 but의 출현 빈도(백분율)

(단위: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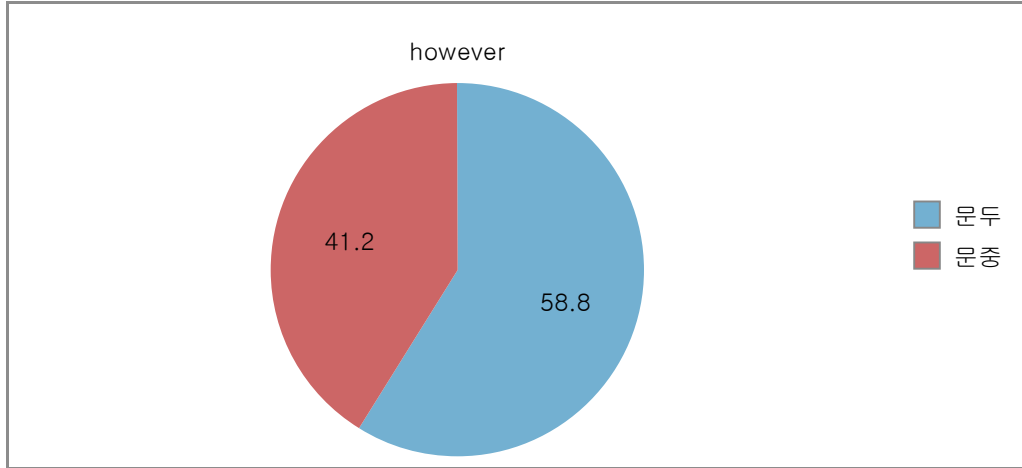


도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영어 교과서 코퍼스에서는 역접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however보다는 but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어 교과서 코퍼스에서 however는 114(0.12%)번 사용되었다. 이 중 문두에는 67번으로 전체 중 58.8%의 사용비율을 보였으며 문중에는 47번으로 전체 중 41.2%의 사용비율을 보였다. 아래 〈표 12〉는 사용비율을 백분율을 통해 나타낸 것이다.

〈표 12〉 영어 교과서에서 however가 문두 혹은 문중에 출현하는 빈도(백분율)

(단위: 퍼센트%)



영어 교과서코퍼스에서 나타나는 however의 위치는 문중보다 문두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영어 모국어 화자들이 however의 보다 약한 역접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문두보다는 문중에 더 많이 사용하는 양상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however를 문두에 위치시킴으로써 강한 역접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고광윤과 이성운(2008)은 이처럼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영어에서 however가 문두에 많이 나타나는 경향은 한국어의 영향이라 보았다. 한국어를 사용할 때, ‘그러나, 하지만’과 같은 역접의 접속사는 대부분 문두에 위치하며 문중에 위치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시(1)은 영어 교과서에서 however가 문두에 쓰인 예를 보여준다.

- (1) Wind power is an important energy source in countries like the Netherlands and Germany since it does not produce any harmful

pollution. **However**, like solar energy, using wind to make power is highly dependent upon weather and location. Recently, Korea has started to recognize the potential of wind energy and joined in the development of wind power. Hangwon Wind Farm is the first wind power complex in Korea.

(천재교육 High school English 2 Lesson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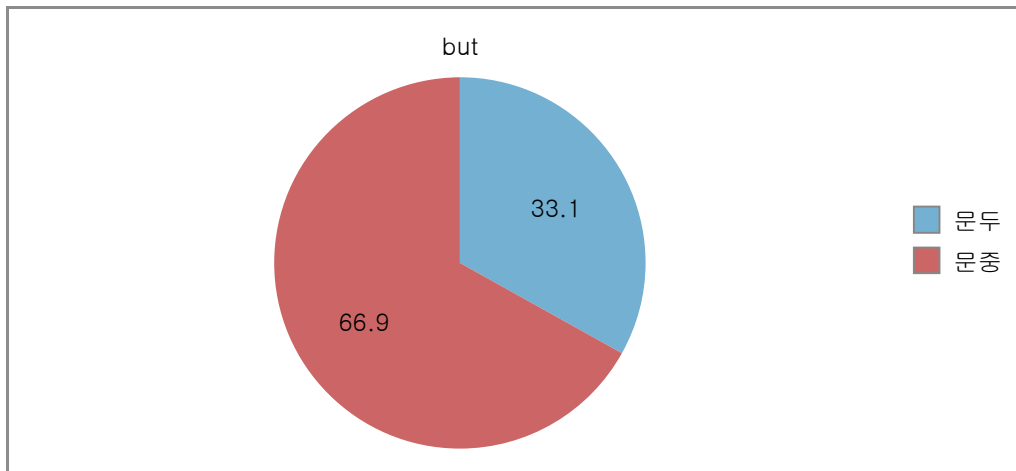
예시(2)는 영어 교과서에서 however가 문중에 사용된 예를 보여준다.

- (2) The growth of our IT industry, **however**, is just one part of Korea. We are a nation with a rich history, tradition, and culture of more than 5,000 years. So I do hope you'll have enough time to go sightseeing and experience the spirit and charm of Korea.

(능률교육 High school English Lesson 10)

다음으로 영어 교과서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역접의 접속사 but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but은 however보다 역접의 의미가 약하다. 전체 텍스트에서 but은 총 420번(0.43%) 사용되었다. 문장 내에서의 위치를 살펴보면, 문두에는 139번(33.1%) 그리고 문중에는 281번(66.9%) 사용되었다. but은 however와 다르게 문두보다는 문중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표 13> 과 같다.

〈표 13〉 영어 교과서에서 but이 문두 혹은 문중에 출현하는 빈도(백분율)  
(단위: 퍼센트%)



영어 교과서에서의 but이 문두와 문중에 사용된 예를 살펴보았다. 먼저 문두에 위치한 but의 예시를 살펴보았다.

(3) We humans are not bad at smelling. We can distinguish about 10,000 different smells, and we do it in just a few milliseconds. **But** we use our brains for all kinds of other things, like interpreting images from our eyes and engaging in a variety of mental activities. Other animals don't have this kind of distraction, so their sense of smell is much better than ours. Sharks, for example, can smell 10,000 times better than we do. Salmon are even better. It is known that they can smell 30,000 times better than us.

(두산동아 High school English reading and writing Lesson 4)

다음은 문중에 위치한 but의 사용 예시이다.

(4) There is no doubt that English is widely regarded as the global language. People use words such as okay, thank you, yes, bye and welcome all over the world. In Yugoslavia, five different languages are spoken, none of which has an equivalent to the English word stop, **but** every stop sign in the country says just that. In a hotel in Thailand, you will find this message on every door: “Guests should check out before 12 o’clock.”

(천재교육 Highschool English 2 Lesson 10)

#### 4.2.2 출판사별 영어 교과서의 비교

영어 교과서의 출판사에 따라 however와 but의 사용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또한 전체 영어 교과서 코퍼스에서 나타난 사용비율이 각 출판사별 코퍼스의 사용비율과 비슷한지 살펴보았다. 영어 교과서 출판사는 천재교육, 두산동아, 그리고 능률교육이다.

〈표 14〉 각 출판사별로 나타나는 however와 but의 사용 비율

	전체 영어 교과서 코퍼스	천재교육	두산동아	능률교육
전체 어휘 수	97,845	25,211	36,601	36,033
전체 어휘 중 however의 사용 횟수	114회 (0.12%)	33회 (0.13%)	39회 (0.11%)	42회 (0.12%)
전체 어휘 중 but의 사용 횟수	420회 (0.43%)	93회 (0.37%)	167회 (0.46%)	160회 (0.44%)

however와 but의 출현 비율(백분율)		21.3: 78.8(%)	26.2: 73.8(%)	18.9: 81.1(%)	20.8: 79.2(%)
however 의 출현 비율(백분 율)	문 두	67회 (58.8%)	22회 (66.7%)	22회 (56.4%)	23회 (54.8%)
	문 중	47회 (41.2%)	11회 (33.3%)	17회 (43.6%)	19회 (45.2%)
but의 출현 비율 (백분율)	문 두	139회 (33.1%)	25회 (26.9%)	51회 (30.5%)	63회 (39.4%)
	문 중	281회 (66.9%)	68회 (73.1%)	116회 (69.5%)	97회 (60.6%)

세 개의 영어 교과서 출판사 중 however와 but의 사용비율 차이가 가장 큰 출판사는 두산동아였으며 반대로 가장 작은 차이를 보인 출판사는 천재교육이었다. 문두, 문중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however의 문두 출현율이 가장 높은 영어 교과서의 출판사는 천재교육이었으며 문중의 출현율이 가장 높은 영어 교과서는 능률교육 출판사였다. but의 문두, 문중 출현비율은 however의 결과와는 반대로 능률교육의 영어 교과서에서 문두에서 출현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문중의 출현비율은 천재교육의 영어 교과서에서 가장 높았다.

#### 4.2.3 대학 영자 신문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서의 however와 but에 대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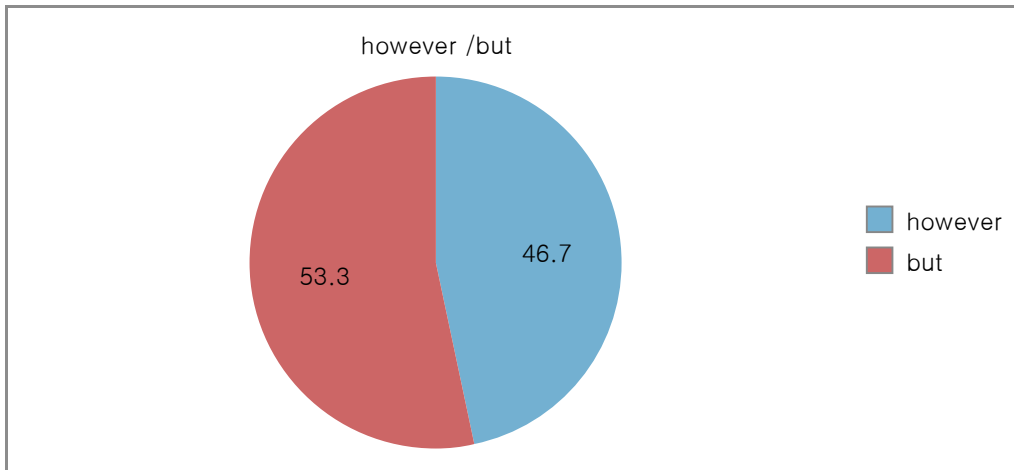
〈표 15〉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 사용된 however와 but

전체 어휘 수 : 73,437	
사용 횟수(전체 어휘에서의 백분율)	
however	184(0.3%)
but	210(0.3%)

however는 총 184번 사용되었고 전체 코퍼스의 0.3%를 차지하였고 but은 총 210번 사용되었으며 however와 마찬가지로 전체 코퍼스의 0.3%를 차지하였다.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서 사용된 however와 but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표 16〉 과 같다.

〈표 16〉 대학 영자 신문에서 however와 but의 출현 빈도(백분율)

(단위: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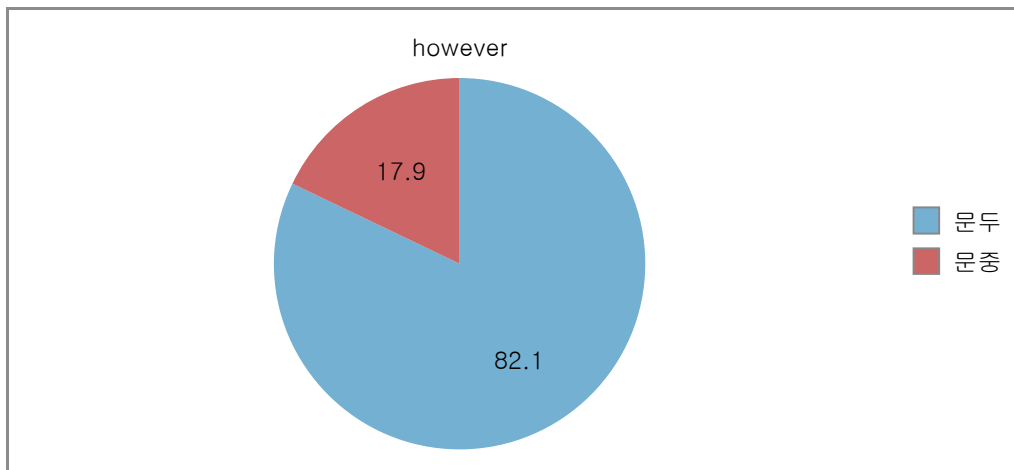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서의 however와 but의 사용비율은 46.7%: 53.3%로 영어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however보다는 but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영어 교과서 코퍼스에서 나타난 however와 but의 출현비율의 차이 21.3%: 78.7%보다는 낮은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however의 문장에서의 위치를 살펴보면 영어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문장 내에서의 however의 위치가 문중 보다는 문두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총 사용횟수 184번 중 문두에는 151번 사용되었고 문중에는 33번 사용되었다.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문두에는 82.1(%)의 사용비율을 보였으며, 문중에는 17.9(%)의 사용비율을 보였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표 17> 과 같다.

<표 17> 대학 영자 신문에서 however가 문두 혹은 문중에 출현하는 빈도(백분율)

(단위: 퍼센트%)



아래의 예시는 대학 영자 신문에서 however가 문두에 쓰인 예를 보여준다.

- (5) Nam Suk-ho, a senior who majors in business, said, “I think this is a precious chance not to be lost for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I gained a lot of information at this event. **However**, it would be better if there was more space for us to use while we are waiting to

meet with the company representatives.”

(The Argus No. 441)

다음은 대학 영자 신문에서 문중에 사용된 however의 예를 보여준다.

(6) I entered the department of geology although I wanted to study architecture, which was my preference. If I had not liked geology at all, **however**, I would not have chosen this major. Luckily, I was also interested in geology. During the second semester of my Junior year, I decided to do double major in Geology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KNU Times No. 341)

영어 교과서 코퍼스와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 모두에서 문장에서의 however 위치가 문중보다는 문두에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광윤과 이성운(2008)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광윤과 이성운(2008)은 코리아헤럴드, 코리아타임즈, 중앙데일리, 3종의 영자신문 사설을 코퍼스로 구축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07년 4월 6일부터 2007년 9월 21일까지로 5일 간격으로 수집한 영자 신문 사설을 코퍼스로 구축하였다. 코퍼스의 규모는 100,959였다. 자료 분석 결과 <표 18>와 같았다.

〈표 18〉 however의 위치적 특징(고광윤, 이성운 2008)

	문두	문중	문미	합계
한국 영자신문	85	41	3	129
외국인 코퍼스	6	18	0	24
Frown B(환산)	(10.9)	(32.8)		(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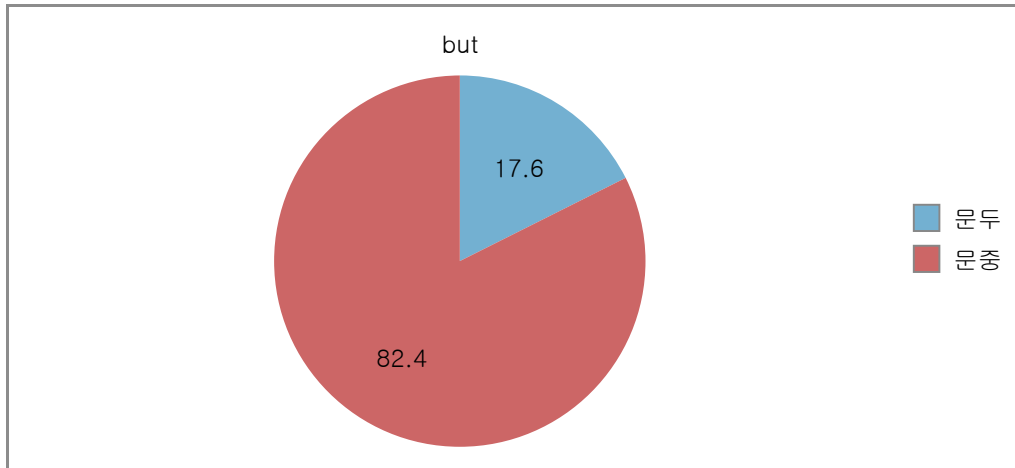
위의 표와 같이 고광윤과 이성운의 연구결과에서 however가 문중보다는 문두에서 배 이상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두와 문중에 나타나는 however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문두에 사용된 however는 65.9%, 문중에 사용된 however는 31.8%이다. 반면 외국인 코퍼스 Frown B에서의 however의 위치는 문두보다는 문중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한국어에서는 접속부사가 문장 중간에는 올 수 없고 문두에만 쓰일 수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한국어에서 문두에만 위치하는 접속부사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이 영어를 사용할 경우 한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접속부사를 문두에 위치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영어 교과서, 대학 영자 신문, 국내 영자 신문사설 모두에서 문장에서의 however의 위치가 영어 원어민들이 문중을 선호하는 것과 다르게 문두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 졌다.

다음으로 however보다 역접의 의미가 약한 but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서 but의 출현 빈도는 210번으로 전체 코퍼스의 0.3%를 차지하였다. 그 중 문두에는 37번 사용되었고 문중에는 173번 사용되었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해보면 문두에 사용된 but은 17.6%이며 문중에 사용된 경우는 82.4%이다. 이는 but이 문중에 사용된 비율이 높았던 영어 교과서와 동일한 결과이다.

〈표 19〉 대학 영자 신문에서 but이 문두 혹은 문중에 출현하는 빈도(백분율)

(단위: 퍼센트%)



아래의 예시는 대학 영자 신문에서 but이 문두에 위치한 예를 보여준다.

(7) KAIST students are too stressed out and are under a lot of pressure from intense competition. **But**, if you think of it the other way round, it is natural to sometimes be behind your peers since you are competing with students who have similar academic abilities as you do. Besides, grades in one's undergraduate years do not solely determine your future.

(The Kaist Herald No. 108 )

다음으로 문중에 위치한 but의 예이다.

(8) At POSTECH, this very solution is the main cause of the problem. Its members already know reasons for failures, **but** they don't solve the puzzle. It is an urgent matter that we must conquer as soon as

possible. For the sake of POSTECH's development and excellence, what is the most appropriate way to approach our destination?

(The Postech Times No. 310)

#### 4.2.4 however와 but 사용 양상의 요약

지금까지 영어 교과서 코퍼스와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역접속(부)사 however와 but에 대해 알아보았다. however와 but의 사용 비율과 문장에서의 위치는 영어 교과서 코퍼스와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먼저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의미의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but보다는 however가 많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however의 문장에서의 위치가 문중보다는 문두에서 많이 사용된 반면 but은 문두 보다는 문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어 교과서에서 사용된 however와 but의 사용양상이 대학 영자 신문에서 사용된 however와 but의 사용양상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4.3 조동사 will과 be going to

Parrott(2001)은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조동사 will과 구 조동사 be going to는 영어 L2학습자들이 겪는 어려운 항목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미래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will과 be going to를 동일하지만 둘 사이에는 엄연히 의미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해야 하는데 L2학습자들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과잉 일반화나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will과 be going to의 차이점은 will은 불확실한 미래의 계획을 표현할 때 사용하며 be going to는 계획이 어느 정도 확실한

경우에 사용한다는 점이다. will과 be going to의 사용 특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Biber(2000)에 따르면, be going to는 구어 텍스트인 대화 장르에서는 높은 빈도수를 보이지만 뉴스, 학술지와 같은 문어 텍스트에서는 낮은 빈도수를 보인다. 이에 반해, will은 문어체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다.

뉴스, 학술지와 같이 격식성있는 문어체에서는 높은 수동형의 사용 비율을 보이며 비격식적인 대화 장르에서는 축약형의 사용비율이 높다. 이는 결과적으로 will은 격식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며 be going to는 비격식적인 표현으로 사용됨을 나타낸다(홍경선, 2008). will과 be going to의 또 다른 사용 특징은 Raymond Murphy와 William R. Smalzer(2000)에서 찾아볼 수 있다. will은 화자가 말하는 시점에 결정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반면 be going to는 이미 사전에 결정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will과 be going to의 사용 특징을 정리하면 <표 20> 과 같다.

<표 20> will과 be going to의 특징 (홍경선, 2008)

	will	be going to
장르성 genre	문어적	구어적
격식성 formality	격식적	비격식적
예측성 predictability	일반적 미래	현재와 연관된 미래
의도성 intention	현장에서 결정	사전 결정

지금부터 영어 교과서와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조동사 will과 be going to가 앞에서 언급한 특징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영어 교과서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will과 be going to의 사용양상이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영어 교과서 출판사별로 사용된 will과 be going to의 비율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 4.3.1 영어 교과서

영어 교과서 코퍼스에서 사용된 will과 be going to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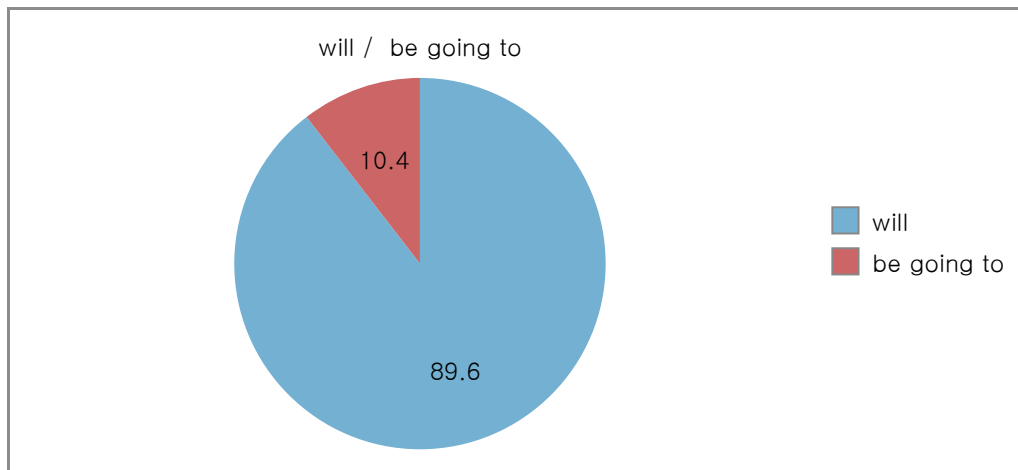
〈표 21〉 영어 교과서 코퍼스에 사용된 will과 be going to

전체 어휘 수 : 97,845			
		사용 횟수	총 사용 횟수(전체 어휘에서의 백분율)
will	will	279	361(0.37%)
	'll	59	
	won't	23	
be going to		42	42(0.04%)

영어 교과서 코퍼스에서 사용된 will은 전체 어휘 97,845의 0.37%로 총 361번 사용되었다. 이 중 will의 줄임 'll은 59번, will not의 줄임 won't는 23번 사용되었다. 이에 반해 be going to는 42번 사용되었으며 전체 어휘의 0.04%로 will에 비해 현저히 적게 사용되었다.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표 22〉와 같다.

〈표 22〉 영어 교과서 코퍼스에 사용된 will과 be going to의 비율

(단위: % 퍼센트)



will과 be going to의 사용양상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첫 번째로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will이 더 많이 사용되는지 be going to가 더 많이 사용되는지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이는 will은 문어적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고 be going to는 구어적 상황에서 자주 등장한다는 will과 be going to의 특징(Biber, 2000)이 영어 교과서에 반영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will과 be going to가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사용된 비율을 살펴보았다.

전체 영어 교과서 코퍼스(97,845단어)에서 구어체에 사용된 어휘 수는 11,681이며 전체 코퍼스의 11.9%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문어체에 사용된 어휘 수는 86,164로 전체 코퍼스의 88.1%를 차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나타난 will과 be going to의 출현비율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표 23>은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나타난 will과 be going to의 출현비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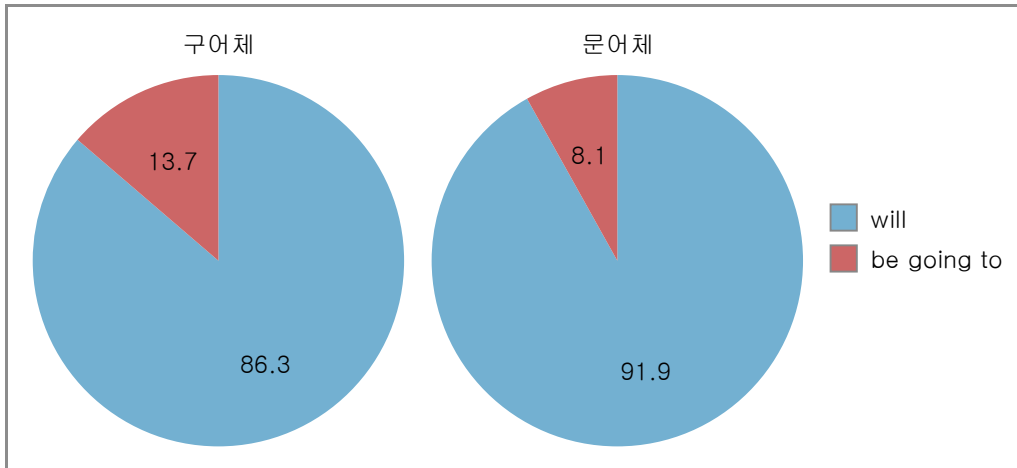
<표 23>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사용된 will과 be going to

		will(사용횟수/%)	be going to(사용횟수/%)
전체 코퍼스 (97,845)	구어체 (11,681/ 11.9%)	145 / 1.24	23 / 0.2
	문어체 (86,164/ 88.1%)	216 / 0.3	19 / 0.02

먼저 구어체에 사용된 will과 be going to의 출현비율에 대해 살펴보면 구어체의 어휘 수 11,681에서 will은 145번 나타났으며 이는 구어체 총 어휘의 1.24%였다. be going to는 23번 사용되어 구어체 총 어휘의 0.2%를 차지하였다. 구어체에서 will의 사용비율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문어체에 사용된 will과 be going to를 보면 문어체의 86,164의 단어 중 will은 216번 사용되었으며 전체 문어체의 0.3%를 차지했다. be going to는 19번 사용되어 0.02%의 사용비율을 보였다. 구어체뿐만 아니라 문어체에서도 will의 사용비율이 높았다.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표 24> 와 같다.

<표 24 >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나타나는 will과 be going to(백분율)  
(단위: %퍼센트)



아래의 예시 (9)는 구어체에서 사용된 will의 예를 보여준다.

(9) Mr. Miller: Certainly. The global economy means that young people **will** have more opportunities to work with people from other countries. Good cross-cultural skills allow people to interact effectively without causing misunderstandings.

(능력교육 High school English 2 Lesson 1)

예시 (10)은 구어체에서 사용된 be going to의 예를 보여준다.

(10) GIRL: I know, sir, but you asked me what my favorite was.

VOICE: Well, you're an honest little thing, aren't you? It refreshing . . . . irritating, but refreshing. Very well, what **are** you **going to**

read for me?

GIRL: I would like to read from The Three Sisters.

VOICE: Indeed? Which sister?

(친재교육 High school English 2 Lesson 8)

아래의 예시 (11)은 문어체에서 사용된 will의 예를 보여준다.

- (11) Peter-Lind is a professional ice cream taster. His real job title is Flavor Development Specialist. He works for an ice cream company. He creates new ice cream flavors. He gets ideas, makes samples, and tries them out. He also thinks about ice cream flavors that other people **will** like. Peter worked as a chef and a baker before he worked for the ice cream company. A good ice cream developer must have food preparation training or experience, be creative, and love ice cream!

(친재교육 High school English 1 Lesson 4)

예시 (12)는 문어체에서 사용된 be going to의 예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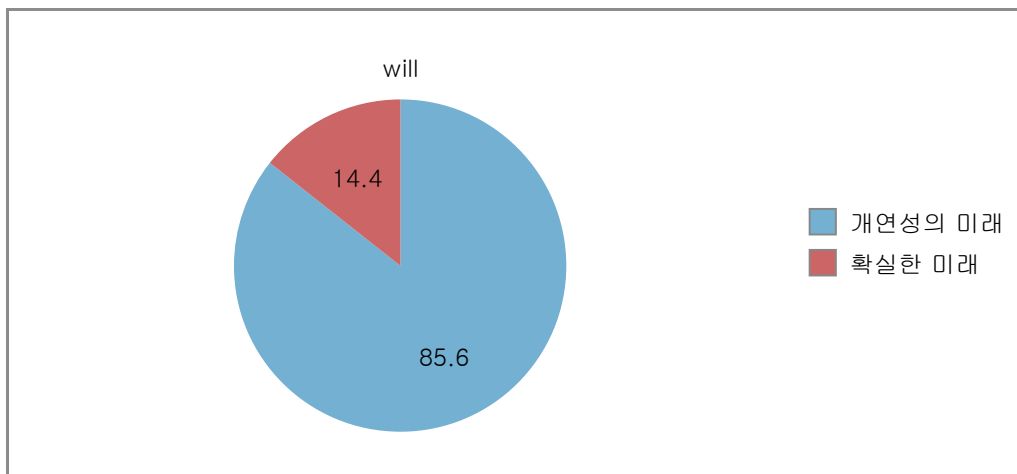
- (12) On November 21st, the 20th World Musical Festival will be held on Freedom Street. You can enjoy fantastic musicals from all over the world. Among a variety of magnificent musicals, we **are going to** introduce the two most popular musicals in the festival.

(두산동아 High school English 1 Lesson 8)

다음으로 영어 교과서 코퍼스에서 will과 be going to가 일반적이고 현장에

서 결정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지 혹은 사전 결정된 미래와 현재와 연관된 확실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지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이는 will이 가정적인 높은 개연성의 미래를 나타내고 be going to는 현재와 관련된 확실한 미래를 나타낸다는 특징(Murphy, 2000)이 영어 교과서에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먼저 개연성의 미래인지 확실한 미래인지에 따른 will의 사용비율은 <표 25>와 같았다.

<표 25> 미래의 확실성에 따른 will의 사용 비율 (단위: % 퍼센트)



영어 교과서에서 총 361번의 사용을 보인 will은 현장에서 결정되고 일반적인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309번 사용되었으며 총 사용된 will의 85.6%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현재와 관련성이 높고 사전에 결정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52번사용으로 전체 will 중 14.4%의 사용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영어교과서 will은 좀 더 확실한 미래를 나타내거나 사전 결정된 미래를 나타내기보다는 현장에서 결정되고 좀 더 일반적인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시 (13)은 will이 개연성이 높은 미래를 나타낼 때 사용된 예를 보여준다. 반면 예시 (14)는 will이 좀 더 확실한 미래를 나타낼 때 사용된 예를 보여준다.

(13) Most career counselors agree that to find a job that you **will** love, you need to do a self- assessment exercise. Self-assessment means learning about yourself. In fact, to find a job that is right for you, you must get to know yourself very well. Self-assessment will offer you a chance of discovering what you do best and what interests you.

(천재교육 High school English1 Lesson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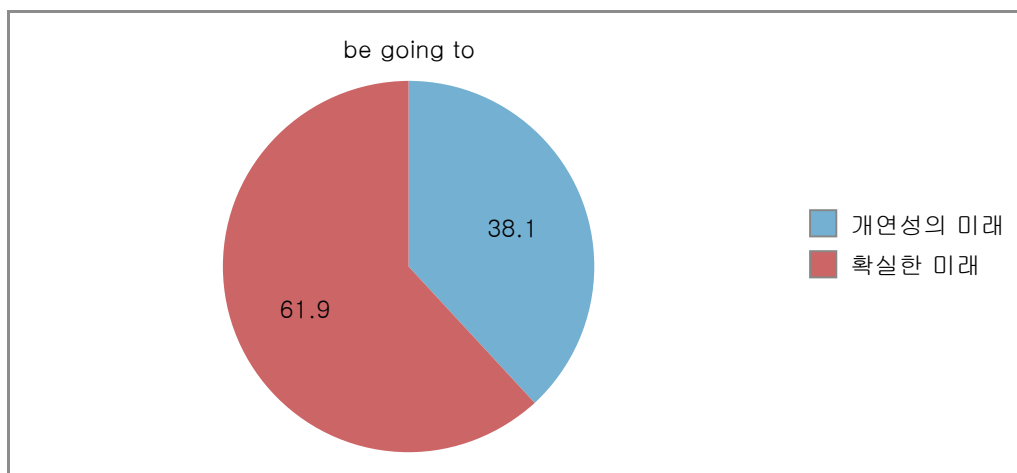
(14) On November 21st, the 20th World Musical Festival **will** be held on Freedom Street. You can enjoy fantastic musicals from all over the world. Among a variety of magnificent musicals, we are going to introduce the two most popular musicals in the festival.

(두산동아 High school English1 lesson 8)

다음으로 미래에 따른 be going to의 사용비율을 분석한 결과 <표 26> 과 같았다.

<표 26> 미래의 확실성에 따른 be going to의 사용 비율

(단위: % 퍼센트)



영어교과서에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be going to는 개연성의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비율보다 좀 더 확실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비율이 더 높았다. 총 42번 나타난 be going to는 개연성의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서 16번 사용되었으며 이는 38.1%의 비율이다. 반면 확실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서 26번 사용되었으며 이는 61.9%로 나타났다. 예시(15)는 be going to가 개연성의 미래, 현장에서 결정된 미래를 나타내는 예를 보여준다.

(15) Minho: It reminds me of the proverb, “Drop by drop fills the tub.”  
Nuri and his sister may have only knitted one hat each, but what if we all knitted one? We’d be able to save thousands of babies! I think **I’m going to** start knitting a hat today.

(능력교육 High school English1 lesson 6)

반면 예시 (16)은 be going to가 좀 더 확실한 사전에 결정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예를 보여준다.

(16) Volunteers knit hats and send them to Save the Children, which then makes sure that the hats are delivered to new mothers in Africa. I was so impressed that I started knitting a hat, too. Here they are. I just finished knitting this hat last night, and this one is my sister’s. **We’re going to** send them to Save the Children after school today. It’s so exciting to know that I might save a precious life with this simple act. Before, I thought only doctors and heroes could save peoples’ lives!

(능력교육 High school English1 lesson 6)

요약하면, 영어 교과서 코퍼스에서 개연성의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will 이 더 많이 사용되고 확실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be going to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3.2 출판사별 영어 교과서의 비교

will과 be going to가 출판사에 따라 사용비율의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표 27〉 각 출판사별로 나타나는 will과 be going to의 사용 비율

	전체 어휘 수	will과 be going to의 사용비율(백분율)	will 사용횟수	be going to의 사용횟수
전체 영어교과서 코퍼스	97,845	89.6: 10.4(%)	361회(0.37%)	42회(0.04%)
천재교육	25,211	94.6: 5.4(%)	87회(0.35%)	5회(0.02%)
두산동아	36,601	90.7: 9.3(%)	166회(0.45%)	17회(0.05%)
능률교육	36,033	84.4: 15.6(%)	108회(0.30%)	20회(0.05%)

능률 교육 출판사의 영어교과서에서 will과 be going to의 사용비율의 차이가 가장 적었다. 반면에 will과 be going to의 사용비율의 차이가 가장 큰 영어 교과서의 출판사는 천재교육이었다. 천재교육 영어 교과서의 be going to의 사용비율은 능률교육 영어 교과서의 1/3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 4.3.3 대학 영자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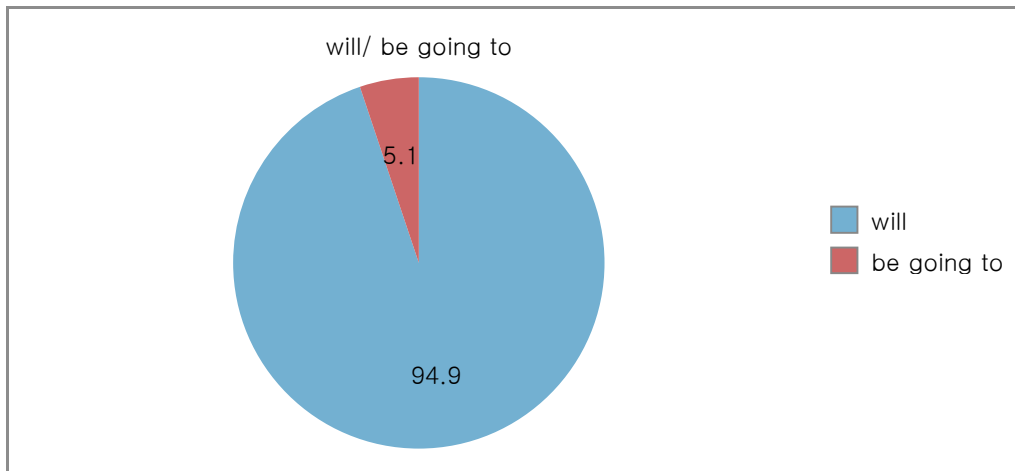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서 사용된 will과 be going to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표 28〉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 사용된 will과 be going to

전체 어휘 수 : 73,437			
		사용 횟수	총 사용 횟수(전체 어휘에서의 백분율)
will	will	185	185(0.2%)
	'll	.	
	won't	.	
be going to		10	10(0.01%)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의 총 73,437어휘 중, will은 185번 사용되었으며 전체 어휘의 0.2%를 차지하였다. 영어 교과서 코퍼스와 다르게 will의 줄임 'll과 will not의 줄임 won't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will보다 좀 더 계획되어지고 확실한 미래를 나타내고 비격식적 상황에 사용하는 be going to는 10번 사용되었으며 전체 어휘의 0.01%를 차지하였다. 대학 영자 신문코퍼스에서 will과 be going to의 사용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표 29〉와 같다.

〈표 29〉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 사용된 will과 be going to의 비율  
(단위: % 퍼센트)



대학 영자 신문에서 나타나는 will과 be going to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영어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개연성의 미래와 확실한 미래에서’ 사용되는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문어체에서 자주 나타나는 will과 구어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be going to의 특징(Biber, 2000)이 대학 영자 신문에서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았다.

전체 대학 영자 신문 교과서 코퍼스(73,437단어)에서 구어체에 사용된 어휘 수는 4,086이며 전체 코퍼스의 5.6%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문어체에 사용된 어휘 수는 69,351로 전체 코퍼스의 94.4%를 차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나타나는 will과 be going to의 출현비율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표 30〉은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나타난 will과 be going to의 출현비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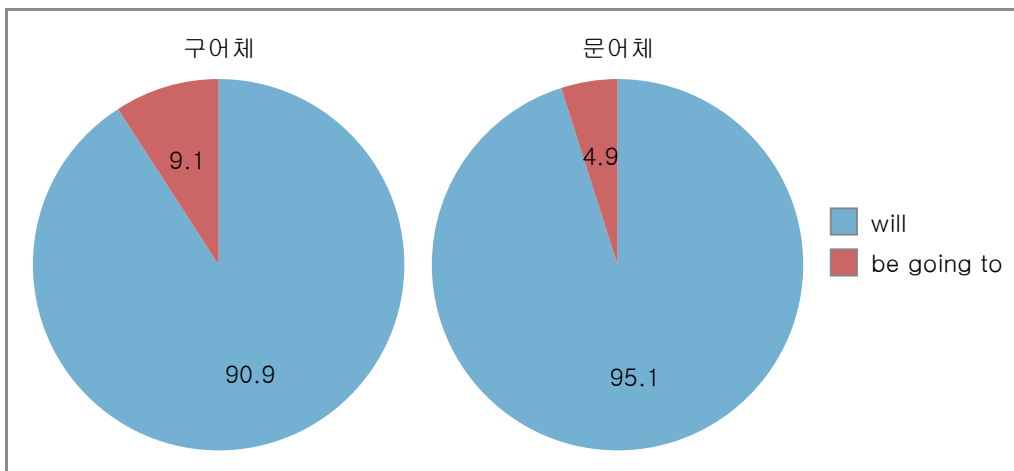
〈표 30〉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사용된 will과 be going to

		will(사용횟수/백분율)	be going to(사용횟수/백분율)
전체 코퍼스 (73,437)	구어체 (4,086/5.6%)	10/0.2	1/0.02
	문어체 (69,351/94.4%)	175/0.3	9/0.01

먼저 구어체에 사용된 will과 be going to의 출현비율에 대해 살펴보면 구어체의 어휘 수 4,086에서 will은 10번 나타났으며 이는 구어체 총 어휘의 0.2%였다. be going to는 1번 사용되어 구어체 총 어휘의 0.0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문어체에 사용된 will과 be going to를 보면 문어체의 69,351의 단어 중 will은 175번 사용되었으며 전체 문어체의 0.3%를 차지했다. be going to는 9번 사용되어 0.01%의 사용비율을 보였다. 구어체와 문어체 모두에서 will의 사용비율이 더 높았다.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1〉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나타나는 will과 be going to(백분율)

(단위: %퍼센트)



다음의 예시 (17)은 구어체에서 사용된 will의 예시를 보여준다.

- (18) According to HUFS professor Choi In-ryeong, “This **will** be a positive development. It is only natural becaus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re **will** be differences between people’s attitudes. So we must acknowledge that people may have dissimilar attitudes. In addition, we must accept each other’s perspective as having validity.”

(The Argus No : 438)

예시 (18)은 구어체에서 사용된 be going to의 예시를 보여준다.

- (18) “I am glad that I am awarded the first prize in this contest. I am getting more intersted in English and I **am going to** study English harder than before. Thanks for those who prepared for this contest and I will keep reading The Argus,” Lee Young-jo said.

(The Argus No : 439)

아래의 예시 (19)는 문어체에서 사용된 will의 예시를 보여준다.

- (19) Stem cell treatment is a strategy that introduces new cells into damaged tissues in order to treat disease or injury. Many medical researchers expect that the self-renewal ability of stem cells offers significant potential for generation of tissues that can potentially replace diseased areas in the body with minimal risk of side effects. PoCaStem **will** develop anti-cancer stem cell treatment which creates disease treatment protein in the body by injecting treatment genes to the pati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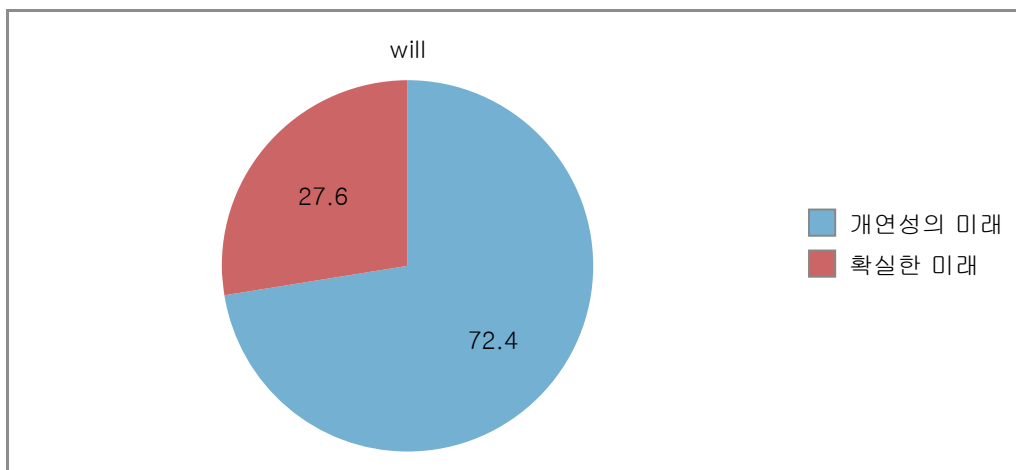
예시 (20)는 문어체에서 사용된 be going to의 예시를 보여준다.

(20) In this respect, I prefer the semester system of foreign country over Korean. Foreign students can study a variety of subjects at first and then decide their major the following semester. Similarly, we should experience a lot of things and then make the decision of what we **are going to** do in the future.

(The KNU Times No.341)

다음으로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미래의 확실성 혹은 사전 결정성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will과 be going to의 특징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will은 개연성의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며 be going to는 좀 더 확실한 미래, 즉 사전 결정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Murphy, 2000). <표 32> 는 will이 사전 결정된 확실한 미래를 나타내기보다 개연성의 미래를 나타낼 때 더 자주 사용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표 32> 미래의 확실성에 따른 will의 사용 비율 (단위: % 퍼센트)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서 will은 개연성의 미래, 현장에서 결정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134번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출현한 will의 72.4%를 차지한다. 반면에 사전에 결정된 좀 더 확실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51번 사용되었으며 이는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서 사용된 전체 will의 27.6%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아래 예시 (21)은 will이 현장에서 결정되고 개연성의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예를 보여준다.

(21) Also, many revisions, both macroscopic and microscopic, have been made to the basic and major related courses. These challenges to amend the current situations to move forward **will** help Postechians to perform curiosity-driven research, leading to an opportunity to occupy better grounds in the blue-sky research.

(The Argus No :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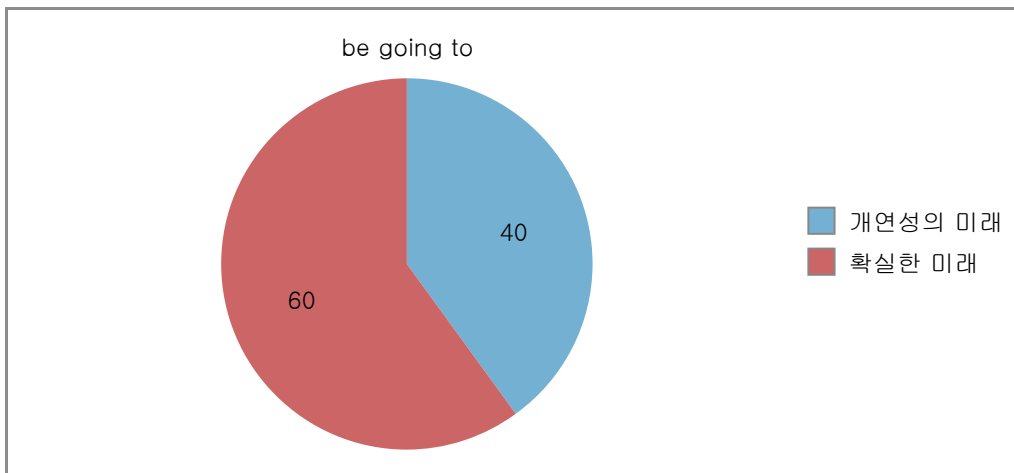
예시 (22)는 사전 결정된 좀 더 확실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will을 보여준다.

(22)This festival is a UCC contest. The three themes of UCC are Best Service from Kyung Hee, Best Challenge at Kyung Hee, and Best Globalization at Kyung Hee. Six kinds of prizes and two trophies are ready for participants. Most importantly, a grand prize **will** be awarded with a trophy and 2,000,000 won. Prize winners **will** be announced in early October and their work **will** be screened to the public at the KHU Daedong festival.

(The University Life 2011. 09. 01)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서 현장에서 결정되고 개연성의 미래를 나타내기 보다는 사전에 결정되고 좀 더 확실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be going to가 사용되었다. 개연성의 미래를 나타내기 위한 be going to는 총 10번 중 4번(40%) 사용되었다. 반면에 사전에 결정된 좀 더 확실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be going to는 6번(60%)이었다. 이를 도표로 살펴보면 <표 33> 과 같다.

<표 33> 미래의 확실성에 따른 be going to의 사용 비율  
(단위: % 퍼센트)



아래 예시 (23)은 be going to가 개연성의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을 때의 예를 보여준다.

(23) Thumbs up to the Industrial Design department with their IDR program, showing that despite the common misconception that they do not belong in a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e, they are way ahead in supporting undergraduate research. **Are** the engineers **going to** catch up as well? Hopefully yes, and hopefully sometime soon.

(The Kaist Herald No. 107)

예시 (24)는 be going to가 사전에 결정된 좀 더 확실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예를 보여준다.

(24) An evaluation **is going to** be made by digital content experts. “Originality and content expression are significant factors in evaluation” said Kim, Min-hee, the Manager at the Office of University Relations. Kim, Dong-sun added, “We hope this festival will be viewed as the unique cultural event at KHU.”

(The University Life 2011. 09. 01)

요약하면,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서 개연성의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서 will이 더 많이 사용되고 확실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be going to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3.4 will과 be going to 사용 양상의 요약

지금까지 영어 교과서 코퍼스와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will과 be going to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두 코퍼스에서 나타난 will과 be going to의 사용 양상의 특징은 비슷했다. 먼저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나타나는 will과 be going to의 비율은 영어 교과서와 대학 영자 신문 모두에서 will의 사용비율이 더 높았다. 두 번째로 미래의 확실성에 따른 will과 be going to의 사용 양상 또한 영어 교과서와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영어 교과서와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 모두에서 현장에서 결정된 개연성 있는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서 will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be going to는 사전에 결정된 좀 더 확실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코퍼스 분석을 통하여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국내 대학 영자 신문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능어 사용양상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파일 구축을 위하여 총 11종의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수집하여 코퍼스로 구축하였다. 대학 영자 신문의 파일 구축을 위해서는 2011 중앙일보 대학평가순위에서 20위 내의 대학 중 영자 신문 사설의 자료수집이 용이한 5개 대학의 영자 신문을 수집하여 코퍼스로 구축하였다. 영어 교과서와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의 분석을 위해서 AntConc 3.2.1w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접속사 *however*와 *but*의 사용양상이 한국에서 발행되는 대학 영자 신문에서 나타나는 사용양상과 차이를 보이는가?’이다. 접속사 *however*와 *but*은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와 같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 시 혼란스러워하는 항목 중 하나이다. 역접의 접속사 *however*와 *but*은 문두에 위치하는지 혹은 문중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역접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해보았다. 두 코퍼스에서 *however*는 문중 보다는 문두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영어 원어민들이 역접의 의미를 보다 약화시키기 위해 문중에 *however*를 위치시키는 것(고광윤과 이성운, 2008)과는 정반대의 결과였다. 주로 문두에 위치하는 *however*와 반대로 *but*은 두 코퍼스에서 문중에 위치하는 비율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영어 교과서와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서 *however*와 *but*의 사용양상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두 코퍼스에서는 동일하게 *however*의 위치가 문두에 사용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없었지만, 고광윤과 이성운(2008)의 연구에서 보여지듯이 영어 원어민들은 *however*를 문두보다는 문중에 위치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차후 교

과서 집필 시 반영하여 학습자들이 좀 더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영어다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한다고 본다.

두 번째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조동사 will과 be going to의 사용 양상이 한국에서 발행되는 대학 영자 신문에서 나타나는 사용양상과 차이를 보이는지 혹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조동사 will과 be going to는 공통적으로 미래를 나타내지만 경우에 따라 양자를 구별해서 사용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항목 중 하나이다. 영어 교과서와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will과 be going to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두 코퍼스에서 will의 사용비율이 be going to의 사용비율보다 현저히 높았다. 둘째,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be going to의 사용비율보다 will의 사용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두 코퍼스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셋째, 영어 교과서 코퍼스에서 will은 현장에서 결정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비율이 높고 be going to는 사전에 결정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세 가지 특징을 통해 영어 교과서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will과 be going to의 사용 특징이 대학 영자 신문 코퍼스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졌다. 하지만 두 코퍼스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장르에 따른 will과 be going to의 특징이 영어 원어민들의 영어에서 나타나는 특징과는 달랐다. 때문에 뉴스나 학술지와 같은 문어체에서는 be going to의 사용비율에 비해 will의 사용비율이 현저히 높지만 대화 장르의 구어 텍스트에서는 be going to의 사용비율이 증가한다는 특징(Biber, 2000)이 교과서에도 반영이 되어 장르에 따라 will과 be going to의 사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학습자들이 학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추가적으로 however와 but, will과 be going to의 출현비율을 영어 교과서 출판사별로 살펴 본 결과 출판사별 출현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however와 but, will과 be going to의 사용양상이 대학 영자 신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영어 교과서가 학습자의 영어 학습능력이나 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보여 진다. 영어 교과서를 주요 학습 자료로 학습한 학습자가 미래에 영작을 하였을 때, 영어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학습자의 글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어 교과서는 학습자의 영어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과서를 집필하거나 수정할 때 좀 더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리라 보여 진다.

## 참고 문헌

- 강범모. (1995). 컴퓨터 코퍼스를 이용한 영어 연구. *언어*, 20(1), 1-38.
- 고광윤. (2005). 한국적 영어학과 영어 코퍼스의 활용. *영어학연구*, (19), 1-21.
- 고광윤. (2008). 교과서 영어의 영어다움에 대한 코퍼스 기반 분석. *영어학연구*, (26), 1-19.
- 고광윤 · 이성운. (2008). 한국 영자신문 영어의 코퍼스 바탕 연구. *언어연구* 23(4), 601-619.
- 권인숙. (2001). 한국, 일본, 중국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코퍼스 언어학적 어휘 비교 분석.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권인숙. (2002).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코퍼스 언어학적 어휘 비교분석.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권인숙. (2004). 한국 중학교 6차 및 7차 교육과정 영어교과서의 코퍼스 언어학적 어휘 비교분석. *외국어교육*, 11(1), 211-251.
- 김규현, 박시영, 임희정, 장선미, 정석환, 송인영, Johanna L. Haas. (2009) *High School English Reading and writing*. 두산동아.
- 김성곤, 윤정미, 송미정, 박용예, 강은영, 문도식, 윤미정, 정석환, Johanna L. Haas. (2008). *High School English*. 두산동아.
- 김성곤, 이병민, 박기화, 김영숙, 박용예, 강은경, 이희경, 윤미정, 이주연, 박용호, Christian H. Kim. (2009). *High School English I*. 두산동아.
- 김성곤, 이병민, 박기화, 김영숙, 박용예, 강은경, 이희경, 윤미정, 이주연, 박용호, Christian H. Kim. (2009). *High School English II*. 두산동아.
- 김영숙. (2000). 영어 기능어의 효과적인 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춘천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 박휴용. (2009). 영어 관사 사용오류에 대한 한국인 EFL연구자의 자기회고적 사례연구. *영어교육연구*, 21(4), 169-194.
- 손유경. (2010). 코퍼스를 활용한 언어(collocations) 학습이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의 어휘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인철. (2002). *영어학 개론*. 한신문화사.
- 유영미. (2010). 코퍼스 분석을 통한 국내 대학 영자신문에서의 서법조동사 사용의 빈도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승렬. (1999). Corpus의 활용방안: Data-Driven Learning. *영어사*, 8, 203-220
- 이연정. (2005). 중3과 고1 영어교과서의 연계성: 의사소통기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재영, 서성기, 문안나, 배태일, 김선영, 전형주, Georgeana Hall. (2008). *High School English*. 천재교육.
- 이재영, 문안나, 김명희, 배태일, 김신혜, 조수경, 전형주, Daniel Ryan Keller. (2009). *High School English I*. 천재교육.
- 이재영, 문안나, 김명희, 배태일, 김신혜, 조수경, 전형주, Daniel Ryan Keller. (2009). *High School English II*. 천재교육.
- 이찬승, 황우연, 안세정, 구은영, 김진홍, 이종은. (2008). *High School English*. 능률교육.
- 이찬승, 황우연, 안세정, 구은영, 윤진호, 김진홍, 양빛나, 성현영. (2009). *High School English I*. 능률교육.
- 이찬승, 황우연, 안세정, 구은영, 윤진호, 김진홍, 양빛나, 성현영. (2009). *High School English II*. 능률교육.
- 이찬승, 김혜영, 김명주, 한정임, 이혜경, 김진홍, 김정란, 김미희. (2009). *High School English Reading and writing*. 능률교육.

- 정은혁 · 민주경. (2005). 중학교 영어 문화교육 연구: 학습자와 교과서 분석중심으로. *영어학 연구*, 19, 37-63.
- 조미숙. (2002). 중 · 고1 영어교과서 난이도 비교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석중. (1997). *영어 통사론*. 신아사
- 홍경선. (2008). 교육용 문법 관점의 will과 be going to 용법 분석. *영어학*, 8(4), 523-545.
- Biber, D., S. Johansson, G. Leech, S. Conrad, and E. Finegan. (2000).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Harlow. Pearson Education.
- Randolph Quirk and Sidney Greenbaum. (1973). *A University Grammar of English*. Longman.
- Randolph Quirk and Others.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 Raymond Murphy and William R. Smalzer. (2000). *Grammar in Use Intermedi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n Cowan. (2008).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rott, M. (2001). *Grammar for English Language Teach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ator Clifford Holmes. (1972). *Manual of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Thomas P. Klammer and Muriel R. Schulz. (1996). *Analyzing English Grammar*. Allyn and Bacon.

## 인터넷 사이트

Kaist(The Kaist Herald) <http://herald.kaist.ac.kr>

POSTECH(The Postech Times) <http://times.postech.ac.kr/>

경북대(The KNU Times) <http://www.knutimes.com/>

경희대(The University Life) [http://media.khu.ac.kr/khu\\_eng](http://media.khu.ac.kr/khu_eng)

한국외대(The Argus) <http://www.theargus.org/>

## ABSTRACT

An Analysis of Corelation betwee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and English newspapers in Korean  
Universities

Arum Kang  
Majoring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English textbooks are the most important and used material for English studying in countries which use English as Foreign language such as Korea. For this reason, Korean students' English competence could be considerably effected by English textbooks. English newspapers in Korean Universities writers might studied English with English textbooks, so features of English textbooks might appear in English newspapers in Korean Universities.

For this thesis, frequency, location, and meaning of function words *however/but* and *will/be going to* were examined. For this study, texts from 11 high school textbooks and 100 newspaper articles were chosen.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in *however/but* analysis, *however* appears more frequently than *but* in both textbooks and English newspapers in Korean Universities articles. Also, locations of *however/but* were similar in the textbooks and the newspaper articles. For example, *however* mostly located at the beginning of sentences in both textbooks and English newspapers in Korean Universities articles. The result of location of *but* was the other way. *but* are generally located at the middle of the sentences in both textbooks and English newspapers in Korean Universities articles.

Second, in terms of frequency, *will* appears far more than *be going to* both in the textbooks and the English newspapers in Korean Universities articles. In spoken and written English, *will* appears more than *be going to* in both textbooks and English newspapers in Korean Universities articles. Also, *will* was used when someone decide to do something at the time of speaking, while *be going to* was used when someone have already decided to do something.

Further, frequency and location of *however/but* and *will/be going to* were examined according to publisher of textbooks. There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ublishers of textbooks consequently.

According to this study, there were similarities between English textbooks's English and English newspapers in Korean Universities articles' English. It means that Korean students' English competence could be considerably effected by English textbooks.